

# “순천도서관 사서 여수 절반 수준”

60여명 이상 필요한데 실제 11명 불과  
도서관 도시 위상 맞는 인력·예산 시급

순천시 도서관 인력과 예산 문제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책과 도서관문화(이사장 서희원)와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이사장 도정일)은 최근 순천 시립도서관에서 ‘도서관 도시 순천의 도서관 운영 현황과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현재 순천시 도서관 인력은 인근

여수나 광양에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경남 김해시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도서관 현황과 인력을 살펴보면 ▲여수 6개소 1만3337㎡/56명 ▲광양 2개소 5392㎡/25명 ▲순천 6개소 1만4329㎡/35명이다.

특히 순천시 도서관 사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서



동심으로 간 어르신들

고흥군 포두면민들이 지난 1일 열린 ‘면민의 날’ 행사에서 공놀리기 시합을 벌이고 있다. 이날 행사는 박병종 군수를 비롯해 45개마을 면민과 출향향우 등 2500여명이 참가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 “산지 수산물 가공시설 확대”

박준영 전남지사 완도 방문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3일 해조류 국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완도에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를 활용해 연간 900t의 국수·냉면·국을 생산하고 있다. 또 홀쇼핑과 학교급식 품질을 높이고, 일본 수출 등으로 2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지사는 “산지에 가공·유통시설을 갖춰 수산업을 기업화해 전남 수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1차 수산물 가공·보관이 가능해 가격 폭락이나 급등을 막을 수 있는데, 유통 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해청정은 지난 2009년 전남도가 투자를 이끌어낸 기업으로 완도에

서 생산되는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를 활용해 연간 900t의 국수·냉면·국을 생산하고 있다. 또 홀쇼핑과 학교급식 품질을 높이고, 일본 수출 등으로 2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지사는 “산지에 가공·유통시설을 갖춰 수산업을 기업화해 전남 수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1차 수산물 가공·보관이 가능해 가격 폭락이나 급등을 막을 수 있는데, 유통 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고흥미역 900억 산업 성장

전국 40% 생산…日 등 해외 선호도 높아

올해 열장미역·마른미역·부산물 등을 포함한 고흥 미역 산업 규모가 사상 최대인 900억원 이상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해역의 미역 양식은 305 어가가 2426㏊

의 어장에서 전국 생산량의 40%인 11만5000여t(150억원/원조 기준)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전년도 재고량의 소진과 전북면이 수요증가, 현대식 산지 가공공장의 유치 가능성 등으로 인해 가공용 원초의 가격이 1kg당 13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게다가 일본에서 원전사태로 인한 생산기반 붕괴와 한국수산물 선

호에 따라 가격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마른미역 100t(20억원)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에는 수출금액 70억원 이상을 체결했다.

고흥 미역 양식어장은 1등급 청정 해역의 깨끗한 수질환경과 좋은 조류수통으로 미역양식에 천혜의 조건을 갖춰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 고흥 미역 명품화와 브랜드화를 추진, 고흥을 미역산업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iju@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동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 (주)호남랜드

상무지구 시청동 LH공사광주전남지사유지빌딩 501

### 태양광발전소 건물 (지붕.옥상)임대 구함

위 치 전남지역. 대불공단우선

면 적 지붕 및 옥상면적5,000㎡

(1,500평)이상

임대조건

12년 사용후 건물주에게 기부

임 대 료 별도지급

사 업 성 10,000㎡(3,000평)기준

년1억원 순수익

### 무안읍 휴게소

무안읍 입구 휴게소 대지 4,666㎡(1,412평).

연면적 1,130㎡(342평). 식당·매점.

현재 성업중. 매매가 9억원.

Tel : 대표. 062-233-2222

직통 062-373-3939. HP : 010-3616-8698

062-952-5960. 010-8004-5900

## “소나무 재선충 막아라” 특명

순천시, 항공 예찰·나무 주사 등 5억 투입

사고 다발지역

첨단車로 진단

광양경찰

순천시가 여수·순천·광양 등 3개 시 경계 지점에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해룡면 성산리에서 최초 발생된 이후 지난해까지 의심목 제거, 나무 주사, 항공 방제 등 3억원을 투자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정원박람회를 1년여 앞두고 있는 올해에는 5억원을 투입해 ‘소나무 재선충병’ 서식처 제거 사업을 비롯한 나무주사, 항공방제(500ha)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항공 예찰을 강화하고 4개소의 재선충병 이동 단초소를 운영하는 등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난 2010년 최초 발생인 여수시 소리면으로부터 9.8km 떨어져 있는 해룡산



광양경찰서(서장 류복열)와 도로교통공단이 광양시 관내 교통사방사고 지역과 맞은 사고구간 3개소(총 6.5km)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광양경찰서는 최근 교통사고 원인 분석과 안전진단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10년 국내기술로 개발한 교통안전 점검차량(TSCV)을 활용해 교통사고 찾은 지역을 조사 및 분석해 도로안전성을 진단했다.

광양경찰은 이번 도로 안전진단 결과를 광양시에 제시해 교통안전 시설물의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교통안전점검 차량은 주행(최대 시속 90km)으로 교통안전 관련 모든 정보(도로의 평탄성·종단선형·평면선형·편경사·표지판·위치 등)를 얻을 수 있어 도로시설·운전자의 안전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목포 클라이밍센터

### 올 국제대회 잇따라

지난 3월 완공된 목포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 센터에서 짜릿한 클라이밍 대회가 다채롭게 열린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5월 개장식을 겸한 ‘제32회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를 비롯해 고미영컵 청소년대회(6월), IFSC 클라이밍 월드컵 대회(10월)가 열릴 예정이다.

‘전국 클라이밍 선수권대회’는 오는 5월 5~6일 이틀간 전국 16개 시·도 연맹에서 추천한 선수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대회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국내대표 선수 선발전을 겸하고 있다.

이어 6월에는 전국의 초·중·고 선수 300여명이 히말라야 낭가파르밧에서 사망한 산악인 고 고미영씨의 열정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3회 고미영컵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 대회’가 열린다.

10월에는 ‘2012 IFSC 클라이밍 월드컵 목포대회’가 전세계 30개국 1200여명의 클라이밍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대회는 세계 유망 산악인 팬사이언스·산악전시회, 산악 영화제 등과 함께 성대하게 개최될 전망이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촌지가 뭐냐’고 수군대며 의아해 했다.

학부모들도 썩 개운치 않은 반응을 보였었다. 촌지 근절 선언문을 지켜본 학부모 중엔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교장이 공개적으로 촌지를 밭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거꾸로 해석하면 이전에는 학부모들이 교장이나 교사들에게 촌지를 자주 줬다는 말이니”

그러나 학부모들의 시선은 그리 끊지 않았다. 촌지는 안 받겠으면서 학부모들에 게 ‘협주’를 원하는

을 제의했으나 프린터 등 교육기자재로 대체해 기증받았다”며 학부모 부담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시선은 그리 끊지 않았다. 촌지는 안 받겠으면서 학부모들에 게 ‘협주’를 원하는

학교 측의 처사는 표리부동한 것 아니라는 것이다. 또 공연히 벽보를 붙여 촌지관행을 어린 학생들에게 까지 알릴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난도 있었다. 학교장의 지혜가 여려모로 아쉽다.

/ejchung@kwangju.co.kr

‘촌지’를 주문해 일부는 부담을 느꼈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교장은 최근 ‘촌지’를 받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주수일 동안 부착해 놓았었다.

교장의 둘출렁동은 조용한 시골 학교에 큰 파장을 불고 왔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조’를 주문해 일부는 부담을 느꼈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교장은 최근 ‘촌지’를 받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주수일 동안 부착해 놓았었다.

교장의 둘출렁동은 조용한 시골 학교에 큰 파장을 불고 왔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촌지’를 주문해 일부는 부담을 느꼈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교장은 최근 ‘촌지’를 받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주수일 동안 부착해 놓았었다.

교장의 둘출렁동은 조용한 시골 학교에 큰 파장을 불고 왔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촌지’를 주문해 일부는 부담을 느꼈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교장은 최근 ‘촌지’를 받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주수일 동안 부착해 놓았었다.

교장의 둘출렁동은 조용한 시골 학교에 큰 파장을 불고 왔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촌지’를 주문해 일부는 부담을 느꼈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교장은 최근 ‘촌지’를 받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주수일 동안 부착해 놓았었다.

교장의 둘출렁동은 조용한 시골 학교에 큰 파장을 불고 왔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촌지’를 주문해 일부는 부담을 느꼈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교장은 최근 ‘촌지’를 받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주수일 동안 부착해 놓았었다.

교장의 둘출렁동은 조용한 시골 학교에 큰 파장을 불고 왔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촌지’를 주문해 일부는 부담을 느꼈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교장은 최근 ‘촌지’를 받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주수일 동안 부착해 놓았었다.

교장의 둘출렁동은 조용한 시골 학교에 큰 파장을 불고 왔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촌지’를 주문해 일부는 부담을 느꼈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교장은 최근 ‘촌지’를 받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주수일 동안 부착해 놓았었다.

교장의 둘출렁동은 조용한 시골 학교에 큰 파장을 불고 왔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촌지’를 주문해 일부는 부담을 느꼈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교장은 최근 ‘촌지’를 받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주수일 동안 부착해 놓았었다.

교장의 둘출렁동은 조용한 시골 학교에 큰 파장을 불고 왔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촌지’를 주문해 일부는 부담을 느꼈다는 반응이다.